

□ 양캠퍼스 29대 총학생회 선거의식 설문조사

학생 40%, 이번 선거 깨끗하지 못했다

우리신문에서는 97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경향과 선거과정중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기위하여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양캠퍼스 공통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1백명(각 캠퍼스당)을 대상으로 전 유권자수에서 단대별 유권자수, 남여 유권자수를 계산, 비율대로 실시되었다.

각 캠퍼스별로 통계를 내 본 결과, 각 문제에 대한 대답비율과 그 순서에 큰 차이가 없어 양캠퍼스 함께 통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나누어 설명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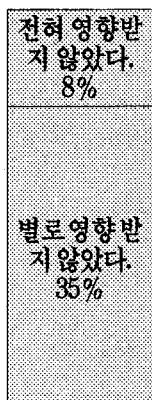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선거였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한총련 사태로 인해 학생회의 대변인이 접쳐졌던 해 선거는 서울대, 외대, 연대, 고려대, 이대 등의 대학에서는 그 예상이 들어맞았지만 우리학교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원 모두 당선된 후보를 보더라도 그러하며 한총련 사태가 이번 투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아도 그렇다. 한총련사태가 투표에 절대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고 대답한 학생이 11%, 대체로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이 32%, 별로 영향받지 않았다는 학생이 35%,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이 8%로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는 학생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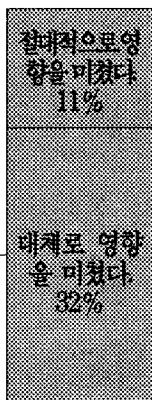
후보자 선택기준

후보자 선택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 2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공약이 학생들에 대한 약속이고 학생들이 그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한 만큼 97년 한 해동안 공약의 실천에 대한 노력 또한 절대적이다. 그 뒤를 이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26%), 후보자의 이미지(25%)가 비슷한 비율로 2, 3위를 차지했는데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어떤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나도 후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개인적 친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사람도 13%를 차지했다.

선거는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외에도 선거운동같이 적극적인 표명기 노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선거에서 한총련 사태영향은?



선거가 정당하고 깨끗했나요?

후보자 공약이 결정적 선택기준 97년엔 학생회 위상 재정립해야

학교 학생들은 투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선거운동으로 정책 자료집이나 각 선본에서 나온 유인물(36%)을 꼽았다. 이는 후보자 결정시 공약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는 위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강의를 유선나 합동유선과도 20%, 선거운동원의 개별적 설득이 16%였으며 선거운동이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16%였다. 논란이 되었던 송치욱-허경태 후보 경고조치와 김종욱 총학생회장 관련 대자

보 논쟁도 13%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건이라고 답했다.

공정한 선거관리

이번 선거가 정당하고 깨끗하게 치러졌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0%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충격을 줬는데 서울보다는 수원 캠퍼스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깨끗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대답이 31%, 깨끗했다가 40%

였으며 수원은 깨끗하지 못했다가 49%, 깨끗했다가 32%였다. 수원 캠퍼스의 경우 동년선거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실망감과 불신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의 경우에도 중선관위의 운영미숙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다음 질문인 중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확인되는 대공정하지 못했다(22%)고 대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이유로 선거사항에 대한 중선관위의 공개부족, 선거관리위원

의 편파성등을 지적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와 선거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점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답했으며 선관위 공개, 후보자들과 물밑팅 공개, 선거시행세칙을 현재와 같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 말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 외 선관위 구성에 일반 학생 참여, 합동연설의 대중화, 제 3의 감시기구 마련, 각 선본의 선거비용 사전명시와 학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있었다.

학생회 위상정립

마지막으로 29대 총학생회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으로 서울은 교육여건 개선(29%)을 수원은 학부제에 따른 학생회 위상정립(32%)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수원 공통으로 등록금 협상, 학내복지, 사회연대운동준비 등 대담했다. 기타의견으로는 학내구성원들의 정체성 강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 수강취소제정사등이 있었다.

(박기람 기자)

투표전 후보자 선택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1	후보자의 공약	28%
2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26%
3	후보자의 이미지	25%
4	개인적 친분	13%
5	잘 모름	8%

중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체로 공정한 편이다	39%
2	보통이다	34%
3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	18%
4	전적으로 공정했다	5%
5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4%

선거운동중 투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은?

1	정책자료집, 유인물	26%
2	강의실유선, 합동유선	20%
3	선거운동원의 개별적 설득	16%
4	아무 영향도 주지않는다	16%
5	대자보논쟁	12%

29대 총학생회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1	학부제에 따른 학생회 위상정립	30%
2	교육여건 개선	26%
3	등록금 협상	20%
4	학내복지	16%
5	사회연대운동	5%

□ 서울캠퍼스 선거쟁점-대자보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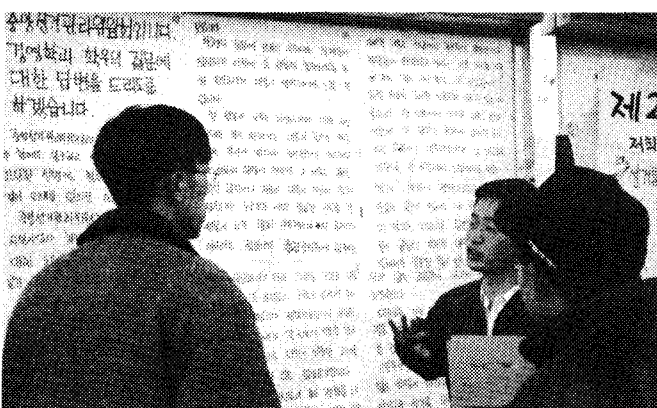
‘인용인가, 표절인가’

송-허 선본 단순정보 인용은 표절 아니다
자료입수 위한 노력도 존중되어야 <중선 관 위>

97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끝이 났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가장 큰 논란거리인 아무래도 송치욱-허경태 선본측의 자료인용에 대한 대자보 논쟁이었던 것 같다. 대자보 논쟁은 정책자료집에 실렸던 박정윤-김영필 후보의 종합강의동 건설 자료를 송치욱-허경태 선본측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유인물에 인용한 것에 대해 중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종합강의동 건설

계획자료 인용이 과연 인용, 표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송-허 후보측에서는 ‘배경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책내용이 아닌, 누구나 알아야 할 단순 정보의 단순인용이 표절시비로 비약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선관위측에서는 ‘언제가는 밝혀질 자료이지만 자료를 구하기 위해 한 달여간 매달렸던 박-김 후보측의 노력도 중요하게 존중받아야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인용의 사전적 의미가 ‘남의 글이나 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끌어다 씀’

이며 ‘도용’은 ‘남의 것을 허가 없이 쓴다’는 뜻, ‘표절’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종합강의동 건설계획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경고 조치와 그 후의 대자보 논쟁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기된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견이 제시된 사실이나 이견의 내용이 반영되지도 공개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경고조치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 바 있는 송-허 선본 측은 이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고 대자보가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자신들



▲지난달 27일 중앙대자보판 앞에서 논쟁중인 중선관위와 학생들

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작성하고 유인물을 돌렸다. 세상에 따르면 합의되지 않은 대자보를 붙이거나 유인물을 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두번째 경고를 받게 되었고 문제가 커지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경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후보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개개인들의 대자보를 통

한 의견제진이 있었고 중선관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침묵했다. 물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 시기에 침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중선관위가 각 선본이 공식적인 통로로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더라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거라는 의견이 많다.

(특별취재반)

사회단신

‘세계인권 날’ 기념 제8회 인권콘서트

제 8회 인권 콘서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이번 달 15일 오후 5시에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한양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치러져왔다.

조동진, 패니, 정태춘, 박은옥, 꽃다지, 윤도현, 하덕규, 한영애, 노찾사, 윤동환, 김중서등이 참여한 노가라밴드 출연하며 여군동 감독이 직접 찍고 노영실씨가 음악을 담당한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과 정의의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영상 연대 메시지도 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노래와 연극, 시낭송, 영상, 춤 등 다양한 형식과

민족해방계열 퇴조 학생운동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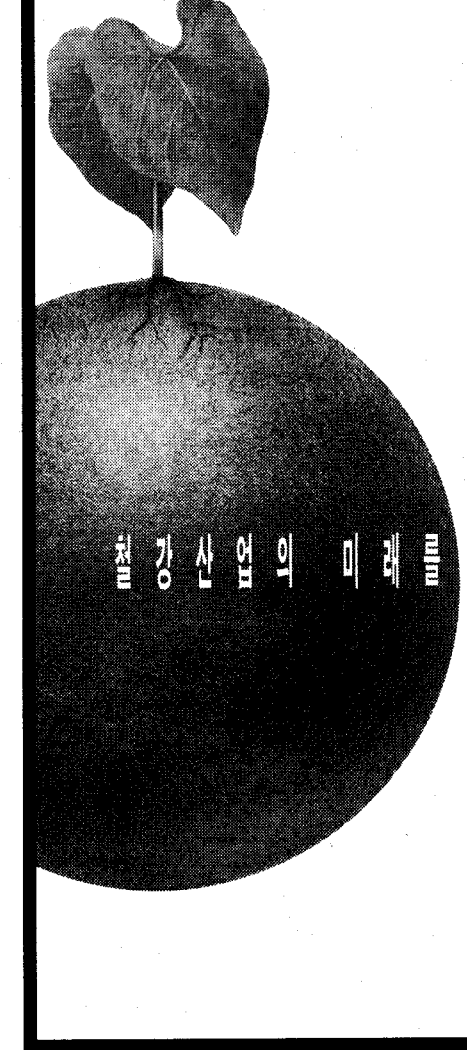
주요 대학의 선거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총련 사태 이후 관심을 끌었던 총학생선거에서 예년에 비해 민족해방계열의 당선자가 적은 듯한 모습이다. 먼저 연세대의 경우 지난 달 있었던 선거에서 비정치적 선거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이화여대는 21C진보학생연합계열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작년에 한총련 의향을 냈던 고려대도 좌파계열의 후보가

문화사회이론 연구 수강생 모집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제 8기 겨울강좌 문화사회이론 연구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달 16일 개강하게되는 이번 강좌는 현대성과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되는데 맑스, 하버마스, 알튀세르, 포스트모더니즘, 구조언어학, 니체, 푸코, 들뢰즈, 문화이론, 페미니즘, 시민사회론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6개월 동안이며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이다. 문의는 3272-7575.

예상을 깨고 당선되었다. 이들은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타파와 통일일변도의 정치투쟁 지양을 주장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기때문에 앞으로 학생운동 모습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3회 POSCO철강논문상 현상공모



논문주제
아래 논제 중 택일, 부제는 자유롭게 선정 가능
· 21세기를 대비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 기술지원회사에서의 철강 및 관련기술 개발 전략
· 철강제품 수요창출 확대방안
· 철강 이미지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 환경친화성을 위한 철강산업의 과제와 역할
· 철강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방안
· 통일한국을 대비한 철강산업의 과제와 역할

응모요령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논문분량 : A4용지 20매 내외, W/P 작성 (논문요약본 4매 별도)
● 제출기간 : '97.2.10~2.28
● 제출물 : 논문 및 논문요약본, 재학생명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 제출처 : (135-777)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 포스코센터, 포항제철 인력팀
● 제출방법 : 우편접수(직접 접수 가능)

시상내역

- 최우수상 : 1편(상장 및 부상 1000만원)
- 우수상 : 1편(상장 및 부상 500만원)
- 장려상 : 2편(상장 및 부상 300만원)
- 입선작 : 3편(상장 및 부상 100만원)
- * 논문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기타

응모작품은 창작물로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함
입상논문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음
기타사항은 포항제철 인력팀으로 문의바람
(Tel 02-3457-1600)

포 항 제 철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教授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양장미본 ₩17,000

TOEFL·VOCABULARY & TOEIC이 책 중독되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 상 강 의 서 기초·영어구문론 ₩10,000

● 아무리 Conversation 이 급해도 ● 아무리 hearing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성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273-8304 서울·충무로 671-267

그 유명한 “광학문 영어학원” LTRC

영어를 왜 LTRC에서 배워야하는가? 여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최고의 영어회화 프로그램
- 25년 동안의 영어교육 경험
- 시청과 광화문에서 3분 이내
- 읽기, 쓰기, 발음, 문법 등의 무료 특별 프로그램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 151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1997년 1월 6일
반편성: Level Test에 따라 8~13명
으로 구성

수강시간: 1월 75분 주 5일 수업(8주)
강사진: Native Speaker 직강
등록: 12월 18일부터 선착순
접수전화: 737-4641
팩시밀리: 734-6036

재단법인 언어교육부설 언어교육학원 LTRC 코리아나호텔빌딩

프랑스어 프랑 스 語

프랑스어외 프랑스문화외의 민낯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7. 1-2월 학과개강: 1.6(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AP, ARC, ESP 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6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DALF 시험
-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 학 상 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에서 직접하세요. ('97봄학기 언어 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taegu ☎ (053) 255-4630 (대구)

프랑스어외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